창 간 호
대림 첫주일
1972. 12. 3

숲정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범 석 규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창 간 사〗

새로운 활력소가 되길

김 영 일 신부

금반 전주지구 6개성당 공동용 주보를 창간케 되었읍니다. 이곳 각 성당이 기왕에 발간해오던 주보를 통합 단일화해서 창간케 되었음은 매우 의의 깊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왜냐하면 통합된 주보를 발간한다는 것은 전주지구 6개성당이 명실공히 보다 굳게 혼연일체가 되었다는 상징이 되며 이로 인하여 우리 천주교는 일취월장 발전의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주보는 교우 여러분의 피가 되고 살이될 수 있는 자기성장의 활력소가 될것을 의심치 않습니다.바라오건대 여러 교우들은 새로운 주보가 주는 의의를 십분 이해하시고 이를 잘 활용하셔서 천주님의 자녀로써 성신의 열매를 맺일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적 일대 전환점에 섰읍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상가의 말이 아니라 온 세계 사람의 상식입니다. 이제 불안과 고민은 세계의 공기가 되었읍니다. 어떤 산골에 있거나 어떤 고도(孤島)속에 있거나 이공기를 호흡하지 않는 자는 없읍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도덕, 종교등 제방면에 근본적 동요가 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대인은 양심이 마비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양심이라 말하면 곧 가책이란 말을 생각하는데, 오늘날 사람에게는 가책이란 것이 별로 없읍니다. 양심이 점점 더 예민해 가는 것을 인류의 향상이라고 한다면, 현대는 그 물질적 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은 분명히 퇴보의 시대라 할 수 밖에 없읍니다.양심이 마비상태에 있는 현대인이 사회불안이 가득차 있는 것은 기이한 현상입니다. 이것은 이론상 모순인듯 하지만 사실입니다.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도리어 불안속에 삽니다. 현대인처럼 불안한 중에 사는 사람은 없읍니다. 사람과 사람사이가 더욱 악화만 되어가고 기분은 갈수록 초조해가기만 하는 것이 현대상입니다. 개인으로나 사회로나 양심이 예민하여 눈이 눈물에 젖어 있는 때는 안심이 있읍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이나 어떤사회에 있어서나 불안한 공기가 하늘을 덮고 초조한 심리가 가슴을 태워온 사회를 무력속에 빠뜨리는 때란 언제나 도덕적으로 양심이 해이해진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법을 근본적으로 혁신을 해야합니다. 근본적인 혁신의 모체는 바로 정신입니다. 이 정신은 천주님의 계시로 파악해서만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제 4지구장, 서학동 주임신부)

❊ 이 주일의 미사 ❊

□**입당송**(시편24 : 1—4)

□**독 서**(로마서13 : 11—14, 신약성서 p364)

□**층계송**(시편24 : 3—4) 주께 바라는 이는 아무도 부끄럽지 않으리이다. 주의 길을 나에게 알려 주시고, 지름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알렐루야**(시편84 : 8), 알렐루야.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보이소서.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소서. 알렐루야

□**복음**(루가21 : 25—33, 신약성서 p189)

□**신자들의 기도**

1. 온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오니,주여,신앙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내림을 즐거이 맞이할 수 있게 하소서 ◎주여,—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2, 우리 교황 바오로와 모든 성직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주여,그들로 하여금 하느님의 백성을 그리스도께로 바로 인도하게 하소서. ◎주여—

3, 모든 신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여, 신자로서 품위와 책임을 자각하고, 교회와 이웃을 위해 기꺼이 봉사토록 하소서. ◎주여—

4. 선의의 모든 사람과 특히 국가지도자들을 위해 간구하오니,주여,그들로 하여금 사회정의와 국가의 안녕질서를 바르게 펴도록 도와주소서. ◎주여—

5. 가장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간구하오니,주여,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힘대로 도와 주게 하소서. ◎주여—

□**영성체송**(시편84 : 13)주는 온갖 행복을 내려 주시고, 우리의 땅은 열매를 주리로다.

❊ 이주간의 성경 ❊

4(월)독서(로마서14 : 1—12, 신약성서 p364)
복음(마태오8 : 5—11, 신약성서 p16)
5(화)독서(로마서14 : 13—23, 성서 p365)
복음(루가10 : 21—24, 성서 p156)
6(수)독서(로마서15 : 1—6, 성서 p366)
복음(마태오15 : 29—37, 성서 p37)
7(목)독서(로마서15 : 7—13, 성서 p366)
복음(마태오7 : 21, 24—27, 성서 p15)
8(금)성모의 원죄 없으신 잉태축일
독서(에페소서1 : 3—6, 성서 p437)
복음(루가1 : 26—38, 성서 p122)
9(토)독서(에페소서2 : 1—10, 성서 p438)
복음(마태오9 : 35—10 : 1, 6—8, 성서 p20)

〖축 사〗

복음 선포의 길잡이

김 재 덕 신부

이번 대림 제1주일부터, 특히 개정된 새 전례력(典禮曆)의 실시와 때를 같이 하여 전주시내 6개 본당의 합동 주보 「숲정이」지가 발간됨에 대하여, 크게 축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는 또 하나의 우리 그리스도교의 일치성(一致性)에서 연유되는, 공동체(共同体) 의식의 발로로서, 더욱 그 의의가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부 본당에서는 10년, 8년, 6년전부터 본당 고유의 주보 혹 월보를 발간하여 꾸준히 계속하는 동안, 본당 사목활동에 많은 효과를 거두어 왔으며,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좋은 활력소가 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에, 처음 주보가 발간될 무렵만 해도, 신자들의 이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나 적어, 중단될 번한 적이 한 두번 아니었으나, 이제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에 친숙해져서, 주일에 성당에 나올때는, 의례히, 가장 반가운 친구를 만난듯, 아니면 친절한 안내자를 대하듯이 느끼게 되었음은 크게 다행한 일이라 하겠읍니다.

우리 전주교구, 평신도 사도직의 발전적 현상으로서, 사목협의회 산하, 각 본당 사도회의 연합적 지구활동이 날로 활발해짐에 따라, 어떤 연합적인 기관지의 필요성이 또한 절실하게 된 이때에, 이번에 제4 (전주)지구에서 합동주보를 시도한 것은 매우 시기에 알맞는 조처로서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번 새로 선을 보이게 되는 숲정이지는, 분명 만오천의 우리 전주 시내 신자들에게 보다 훌륭한 주간 길잡이가 되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음에서, 자못 기대되는 바가 크다 하겠읍니다.

바라 건데, 주보로서 갖추어 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매주일과 축일이 지니는 전례적 의의(典禮的意義)를 뚜렷이 부각시켜 주어야 하겠고, 다음은 신자들에게 신앙 교리지식을 풍요하게 제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소식과 사목활동의 지침등이 신속히 시달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숲정이지는 명실 공히, 본당 상호 공동체의 동맥의 역활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매번 주보를 엮음에 있어서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자를 망라한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만 할 것이니, 좋은 기사를 계속 많이 제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새로 출범하는 숲정이지가, 더구나, 사제의 수효가 부족한 오늘에 있어, 이를 보충하는 보좌신부와도 같이, 우리 전주 사회에 보다 충실한 주님의 복음 선포의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을 축원하면서 뜨거운 성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천주교 전주교구 교구장 서리)

□ 양지쪽 □

기다리는 마음

양지쪽에 홀로 앉아 해바라기를 하고있는 젊은이여, 그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맥없이 그냥 누구를 기다린다고?

가로등마냥 골목어귀에 서서 밤늦은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 섬그늘에 굴따러 간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들, 파란 신호등을 기다리며 연신 고갯짓을 하는 성급한 젊은 운전수, 번호 순으로 나열되는 합격자 명단을 초조하게 지켜보며 제 차례를 기다리는 학생들, 연인을 기다리며 애꿎은 담배 꽁초만 짓이겨대는 젊은이, 철백만원의 행운을 기다리며 주택복권을 안 주머니에 소중하게 쑤셔넣는 아저씨, 영화 끝난 뒤 만원된 화장실에서 발을 동동대는 사람들…….

하는가하면 오마지도 않은 이를 일도 없이 기다리며 열릴 듯 닫힌 문으로 눈을 자주 보내는 사람들. 여하튼 기다리는 모습도 천태만상이고, 기다리는 그 마음은 유행가 가사마냥 초조하기만하다. 그런데 젊은이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일찍부터, 온 인류에게 생명과 기쁨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기다리던 인간들의 열망을 기념하기 위하여 교회는 성탄전 4주간을 대림절(待臨節)로 지내고 있다.

대림절을 지내는 것은 하느님의 오심을 갈망하고, 그 준비인 회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하느님께서는 이미 이천년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세상 시작부터 항상 우리들 안에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 하느님께서 세상 끝날에 우리의 심판자로서 다시 오심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를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다리며 살아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한다.

젊은이여, 당신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소망이 이루어지는 양지쪽에서 우리 모두 만남의 기쁨을 같이하자. (갑)

성서·성물 판매
성 바 오 로 서 원
전화 ② 7 3 9 8

발 (축) 전
전주시내 6개 본당
주임 신부
일동
사도 회장

✻ 대화의 광장 ✻

● 잔 디 밭 ●

1면 왼쪽 강론 (신부님) □편집계획□
오른쪽 이주일의 미사
이주간의 성경
2면 왼쪽 교리교실 (신부님)
오른쪽 양지쪽
3면 대화의광장 잔디밭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안내
4면 전주시내 6개 본당 소식
교구, 전국, 세계의 움직임

□ 광고 안내 □

1. 크기 8cm×5cm
2. 각 본당의 편집 위원이나 본 편집실에서 접수하오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 위원 □

김 성 록 (천주교 노송동 교회)
이 사 구 (천주교 덕진 교회)
이 경 호 (천주교 복자 교회)
김 길 수 (천주교 서학동 교회)
이 영 희 (천주교 전동 교회)
양 학 도 (천주교 중앙 교회)

□ 원고 모집 □

제3면 대화의 광장 (잔디밭)은 독자들의 쉴곳이요, 사랑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주옥같은 원고 기다립니다.

200자 원고지 3매 내외의 간단한 내용도 좋고, 7매 정도의 글도 환영합니다.

〖축 사〗

평신도의 광장

송 영 선

제4지구인 전주에서 시내 6개 본당이 합동으로 주보를 내게 되었읍니다. 본당 단위의 주보가 지구 단위로, 곧 시(市) 단위로 성장하게 되었음을 우리 모두 기뻐해야 할 일이라고 보겠읍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우리 평신도들은 하느님 백성의 일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기 시작했읍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인 우리가 얼마나한 관심을 가지고 교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가 살펴 봅시다. 오늘날처럼 크리스챤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많은 때도 드문듯 싶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 모두는 하느님과 계약을 맺었읍니다. 그 약속들이 오늘날 얼마만큼이나 지켜지고 있는 지를 우리는 항상 되돌아 보고 새로운 마음의 다짐을 해야겠읍니다. 우리가 새로워질 때, 교회의 모습이 달라지고 우리의 사명이 완수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합동으로 발간되는 이 주보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보고, 우리 형제들의 활동상황을 서로 알아가며 크리스챤으로서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울로 삼아야겠읍니다.

이 주보가 나아가서는 「교구 신문」 역할을 할수 있는 때가 오기를 만오천 전주시내 교우들과 함께 축원해봅니다. (천주교 전주교구 사목협의회 회장)

※독자투고환영 (200자 원고지 3매내외, 전주 해성 중고교 한상갑앞으로, 전화 ②3998

가톨릭 쎈터 프로그램 안내

(관장 신부 박진량, 총무 안지은, 전②3498)

4 (월) 지성인 교리 교실 (제2기)
5 (화) 성경 교실
6 (수) 레크레이션 교실
7 (목) 외국 문화 교실 (불어)
8 (금) 지성인 교리 교실 제1기)
※모든 프로 그램은 오후 7시 30분 부터 시작

※가톨릭 센터는 선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읍니다. 최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고급 인상 사진 ☆

스타-사진관

〈특별봉사〉

主 장 바오로 (남수)

전주시 고사동 1가 오거리통 (동아여관앞) 전화②6094

□ 등산 장비 일절 □

요셉 산악 쎈-터

〈신자들에게 특별봉사〉

主 김요셉 (대원)

전주시 전동 2가 남부 배차장 골목 입구

전주시내 6개 본당 소식

(중앙)

(전화 ②2651 ②3874) 주임 신부 안 복 진 / 사도 회장 김 종 순

1. 사도회 월례회 (12월 3일 공식 미사후)
2. 구역별 피정 실시
   4 (월)…경원, 고사, 중앙동 7 (목)…진북1, 2구
   5 (화)…중노, 인후동 8 (금)…태평1, 2가
   6 (수)…금암, 서신동 11(월)…서노1, 2구
   ※ 시간…매일 저녁 7시30분~10시30분 (시간엄수)
   ※ 장소…성당 ※ 지참물…기도서, 묵주
3. 가을 판공 성사 실시 (매일오후 2시~5시30분까지)
   5 (화)…경원, 고사, 중앙동 8 (금)…진북1, 2구
   6 (수)…중노, 인후동 9 (토)…태평1, 2가
   7 (목)…금암, 서신동 12 (화)…서노1.2구
   ※ 준비…미사예물 (세대당 50원 이상),
   정양회비 (1인당 5원 이상)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함 승 천 / 사도 회장 이 태 영

1. 재속 형제회 월례회 (12월 3일 공식 미사후)
2. 애령회 간부 월례회 (12월 6일 〈수〉 낮 12시)
3. 신용조합 월례회 (12월 10일)
4. 「노송」 학생회 탄생
   회장 권 영진 (공고)
   부회장 김 해연 (혜성) 최 정자 (성심)
   가을 판공 성사 시작은 12월 20일 부터 이오니 충분한 준비로 즐거운 성탄 맞으시기 빕니다.
   유아 세례는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읍니다.

(덕진)

(전화 ②8082) 주임 신부 김 종 택 / 사도 회장 송 영 기

1. 사도회 월례회 (12월 3일 공식미사 후)
   각 공소 회장님, 구역 회장님, 그리고 사도회 임원 여러분들의 빠짐없는 참석 바랍니다.
2. 가을 판공 성사 실시
   11 (월)…전당리 공소 14 (목)…내동리 공소
   12 (화)…미산리 공소 18 (월)…덕진, 송천동
   13 (수)…동산촌 공소 19 (화)…금암, 팔복동
   충분한 준비 (마음과 몸, 교무금등)로 성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3. 결혼을 축하합니다.
   김 행곤 (베드루)군과 송 정희 (베로니카)양
   때…12. 7(목)10시반 곳…전동 성당
4. 지난 주일 봉헌금 3,930원, 감사합니다.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오 기 순 / 사도 회장 조 성 호

1. 사도회 월례회 (12월 3일 공식미사 후)
2. 애령회 (12월 10일 공식미사 후)
3. 레지오 마리에 연총 친목회 (12월10일 저녁미사후)
4. 가을 판공 성사 실시 (12월 20—22일)
   ※ 위 3일간 구역 제한 없이 실시함
   ※ 73년도 교무금 3분의 2이상 납부 요망
   ※ 판공비 (거년과 같이 30원 이상) 준비
5. 본당 기금 조성을 위한 10년 계획의 성미운동은 지난 8월13일 부터 시작되어 지난주 까지 백미 60말이 모아 졌읍니다. 이 성미는 오로지 본당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 영 일 / 사도 회장 육 낙 철

1. 미사 시간 변경 (11월 27일 부터)
   아침 미사 7시, 저녁 미사 7시
2. 사도회 개편후 첫 월례회 (12월 3일)
3. 가을 판공 성사 실시
   ◇ 상관 (12월4—7일) ◇ 구이 (12월11—14일)
4 (월)…신리,신흥,마치,의암 11(월)…양생동
5 (화)…백암,서당,내정,북재 12(화)…우엄띄
6 (수)…내어두리,외어두리,석장13(수)…마음리(환당)
7 (목)…만 부득한 자들 14(목)…석구리(당일)
   오후에 사도회 구성
◉ 본당 (12월19—23)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범 석 규 / 사도 회장 송 영 선

1. 사도회 월례회 (12월 3일 저녁 미사후)
2. 가을 판공 성사 실시
   7 (목)…전동, 풍남동, 중앙동, 남노송동
   8 (금)…동, 서완산동
   9 (토)…교동1, 2가
   10 (일)…기타동
   ※ 시간…오전 10—12시, 오후 3—6시
   ※ 부득이한 분은 주일 미사전 30분과 평일 미사 전후에 성사 줍니다.
3. 유아 세례는 매월 첫주일 아동 미사후에 있읍니다.
4 연총 친목회
   12월 8일 (금요일)밤 7시30분 성심 유치원.
   ※ ① 각 p에서는 단원,협조 단원 참가 요망
   ② 각 p별로.특기 차량준비
5. 지난 주일 봉헌금 27,178 원, 감사합니다.

		중 앙	노 송 동	덕 진	복 자	서 학 동	전 동
미사시간	주일 오전	6시,10시	6시반,10시	10시	10시	10시	6시,10시,11시
	주일 오후	7시반(토요특전5시)	7시(토요특전5시)	4시,7시(토요 특전 7시)	7시	7시	7시
	평일 오전	월.수(6시)금(10시)	금(10)	월.수.금(6시반)		월. 목(7시)	월.화.목.금(6시)
	평일 오후	화.목(6시반)	화.수.목(6시반)	화.목 (7시)	매일 (7시)	화.수.금.토(7시)	수.토.(7시)

보광 출판사 인쇄